

전남, 신·재생 에너지 8사 유치

투자금액 350억원 달해 ... 솔포커스는 한국형 태양광 모듈 생산

전라남도는 신·재생 에너지 관련기업 8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.

전라남도는 도청에서 미국 솔포커스 등 국내외 8개 신·재생 에너지 관련기업과 350억원의 투자협약을 12월8일 체결했다.

8사는 집광형 태양광 모듈 및 부품 개발, 중소형 풍력발전기 및 풍력·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등을 제조하고 있다.

투자협약에 따라 솔포커스는 2009년 나주 문평산업단지에 입주한 한국 검사정공사와 함께 70억원을 투자해 기술을 이전하고 한국형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게 된다.

또 미국 UGE는 나주 문평산업단지의 알에스넷과 함께 130억원을 투자해 중소형 풍력발전기와 풍력 및 태양광 결합형 가로등을 생산할 방침이다.

한국 검사정공사와 솔포커스의 집광형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공장 투자와 연계해 수도권에서 나주로 집단이전하게 될 화건, 네오레즈 테크놀로지, 미르텍 등은 총 150억원을 투자한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

<화학저널 2010/12/08>